

민들레

그날의 하늘은 어땠는지요
폭풍이 몰려왔나요?

그래서,
폭풍으로 영영 빛나는 보지 못할까 근심하여
가슴에 붉은 흩날 피우고
하늘 위 빛이 되신건가요

임이 내려준 만개의 빛은
하늘 아래 사람들의 혈떡이는 숨과 하나되어
흩날들을 노랗게 피워냈지요

그 모습 궁금하거든
그 모습 보고 싶거든
빛 많이 내릴 어느 날
노란 꽃송이 삼키는 이의 땀 되어
잠시 보고 가세요

혹시 땀이 되어 본 노란 꽃들이, 짙은 초목이, 코를 간지럽힐 하얀 털꽃들이
임 얼굴 환한 노란빛으로 물들인다면
다시 흩날 되어 이곳에서 노랗게 피어주세요

그때에는 제가 빛이 되어
나무가 될 만큼의 빛을 드릴게요
눈을 뜰 수 없을 만큼의 빛을

임이 우리에게 준 것보다 더